

성내지 말라

Do Not Get Angry

마태복음 5:21-2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2월 13일 설교

²¹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이란

올해는 지난해 살피던 산상수훈도 이어서 살피고 또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 둘이 잇달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감정, 그 가운데서도 분노에 대해 살피게 되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자유입니다.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동물과는 다르게 어떤 자극을 받든지 내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반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극을 받았든 내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은 또 함께라야 됩니다. 혼자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 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말이야 모른다 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독립된 자유인으로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바로 인격입니다. 영어로 퍼슨 (person)이라 하는데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다움이요 사람스러움입니다. 생각하고, 알고, 판단도 하고, 뭘 하기로 마음먹기도 하고, 먹었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모든 게 인격입니다.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서로 알고 또 그러면서 나는 내대로 자유를 누리는 인격, 그게 사람입니다.

이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보통 지, 정, 의로 구분합니다. 지는 지식, 그러니까 아는 거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저장도 하고 관리도 하는 능력입니다. 정은 감정입니다. 들어온 어떤 정보에 대해 내가 일차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느낌이지요. 의는 그런 지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를 이루어 인격이 됩니다.

감정이란

오늘 살필 분노, 화, 영어로 앵거 (anger), 토박이말로 성이라 하는 건 이 지정의 가운데 감정에 속합니다. 감정이라는 한자가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앞에 붙은 감은 느낀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 내가 반응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감정을 말할 때 필링 아니면 이모우션이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기본은 패션 (passion)입니다. 요즘은 격렬한 감정을 패션이라 하는데 감정의 본 뜻이 이 말에 들었습니다. 패션은 그리스어 파스코 (pasco) 또는 라틴 파시오 (passio)에서 온 말인데 “당한다” 또는 “겪는다” 하는 말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어 쓰면 영화 제목처럼 예수님의 수난이라는 뜻이 되고 감정이라 할 때도 우리 몸이나 마음이 뭔가를 수동적으로 겪을 때 보이는 반응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수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극 또는 원인이 있으면 그 자극이나 원인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감정입니다. 어떤 총각이 같은 회사에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가 잘못 왔습니다.” 하늘로 솟았던 기분이 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누가 등을 세게 때립니다. 아프지요. 기분도 나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반가운 친굽니다. 내가 언제 아팠습니까? 기분만 좋지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밖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 생각을 하다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일이 월급날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다가도 지난 달 사기 당한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유 감정

생각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여기 사람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수동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밖에서 자극이 오든 말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 역시 우리 자유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만큼 우리 감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자극이 밖에서 오는 경우에도 우리는 자유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입니다. 자극을 받는다고 그게 곧장 반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극이 반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생각”입니다. 자극이 오면 아주 짧은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그 판단에 따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좋은 보기인지 모르겠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입니다” 하고 똑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뭘 듯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고 난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극이지만 서로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까닭은 그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생긴 다음 그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도 생각이 개입됩니다. 그러니 생각은 감정이 생길 때도 개입되고 생긴 감정을 표현할 때도 개입됩니다. 주먹으로 맞아 성이 났다고 해서 내 주먹이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요. 기쁨, 슬픔, 분노, 미움, 이런 걸 드러낼 수도 있지만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인과법칙 때문에 감출 수 없는 면도 있긴 하지만 내가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그냥 억누를 수도 있고 남이 절대 눈치 못 채게 철저히 감출 수도 있습니다.

성을 낸다

분노는 그럼 뭐니까? 분노도 감정이지요. 안이나 밖에서 어떤 자극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자극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분노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성이 나면 인과법칙에 따라 일차 반응이 옵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맥박은 빨라지고 인상은 일그러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요. 입을 열면 시궁창에서 악취가 풍기듯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눈을 똑바로 아니면 이렇게 비딱하게 뜨고 쳐다보기도 하고 주먹이 나간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밥상을 엮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는 다른 감정에 비해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격렬합니다. 지, 정, 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기 때문에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큼니다. 게다가 그 반응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성이 나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부드럽게 못 합니다. 과격해지고 판단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고 거듭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6-27). 성이 날 때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을 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성이 난 상태에서는 말을 해도 죄, 행동해도 죄, 전화를 걸어도 죄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성이 났을 때는 아무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했다가는 금방 후회합니다. 또 성난 상태가 오래 가면 그만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어둠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분노한 상태로 어둠을 맞게 되면 그만큼 마귀와 손잡을 가능성이 큼니다.

야곱이 죽기 전 열 두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만 퍼부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창 49:5-7).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이웃 민족 청년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창 34:7). 그래서 그 분노가 이들의 온 인격을 사로잡아 이들은 결국 그 민족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강간도 큰 죄지만 분노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까지 다 죽여 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웃 민족하고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수십 해 동안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성내는 까닭

성, 곧 분노는 나를 억눌러 내가 가진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니 위험합니다. 성이 나면 쉬이 마귀의 줄개가 되기 때

문에 분노는 마귀적인 감정입니다. 성경에는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슬픔이나 두려움을 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죄악입니다. 분노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첫째 감정입니다.

성내는 게 최악인 까닭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긴 다음의 일입니다. 분노가 최악인 진짜 이유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내 판단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죄악이 낳은 열매입니다. 성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입니다.

세상은 분노를 별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그냥 평범한 감정의 하나로 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다는 판단”이고 그런 판단에 따라 “보복을 통해 나를 방어하려는 방법”이라 합니다.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노가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생긴 분노는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지 그냥 감추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히 드러내고 필요하면 터뜨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했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주먹으로 맞으면 성이 나지요. 욕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당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먹이든 욕이든 그런 자극 또는 원인이 자동으로 분노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얻어맞았든 욕을 들었든 아니면 께씹하기 짝이 없는 아무개가 갑자기 생각이 났든 그 원인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어가는 건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성은 교만

무슨 판단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판단입니다. 영적 판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공격당한 걸 되갚는 게 분노라 했지만 제가 분노를 정의한다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한 낱말로 줄이면 교만입니다. 나는 옳으니 자기의요, 남은 틀렸으니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체가 분노가 아니라 그런 판단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자극이나 원인이 있을 때 다른 판단을 하면 분노로 안 가는데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성이 납니다. 내가 꼭 공격을 안 당해도 성은 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져 본다면 나한테도 피해가 온다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노는 나에게 미치는 결과와 무관하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정죄하는 본성, 판단하는 본성, 나는 일단 옳다고 믿으면서 남은 나쁘게 보려 하는 그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입니다.

분노가 정말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맞습니까? 좋은 보기가 있습니다. “똥 편 놈이 성낸다” 하는 말이 있지요. 참 잘 된 속담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성 못 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만 낼 수 있는 게 성이니까 성을 냄으로써 난 잘못이 없소 하면서 제 잘못을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또 누가 내 욕을 했다 하기에 성을 버럭 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참 민망하지요. 왜 민망합니까? 성을 냄으로써 내 의를 내세우고 남은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가 엉터리였으니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판단이 분노를 낳는다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받는 게 심판인데 형제에게 성 좀 냈다고 심판을 받는다니 좀 너무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형제에게 성을 내는 그게 형제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한 나 역시 같은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나중에 다시 살피겠지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남의 죄도 용서해 주도록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게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너도 남을 판단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너도 이웃을 용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분노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화를 내 주세요” 하는 말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를 지옥에 던져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총신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삼하 11-12장). 그런 다음 그 죄를 덮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자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된 짓을 보다 못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임금님. 어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부자는 소, 양이 아주 많은

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짐승은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성을 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비록 왕이긴 하지만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뭐니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고 판단하고 성을 낸 것입니다. 제 판단의 권위를 높이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잇기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판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옳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내 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죄인이 바로 나더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남의 아내를 칼로 빼앗았기 때문에 이후 다윗 집안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밤에 몰래 빼앗은 벌로 다윗은 여러 후궁을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들에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빼앗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분노로 나를 심판한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성을 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가 조금만 이 어지면 갑자기 한 사람이 버럭 성을 냅니다. 주먹질로 가기도 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야기가 서로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성을 내게 만들고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참 흔합니다. 영화도 소설도 그렇고 텔레비전 연속극에도 보니 성내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그것도 일상생활의 일부로, 참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을 내는 건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 주세요 하는 무서운 요청이요 두렵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 왜 이렇게 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성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추기고 더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오늘도 분노에 사로잡혀 싸움하고 보복하고 죄 짓는 걸 즐깁니다. 마귀가 신이 낫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 많이 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발하셔야 될 순간에 참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보고도 성내는 대신 불쌍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분에게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성내지 말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남에게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성을 내십니다. 황금률이지요?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이 일백 데나리온 빚진 친구 목살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에게 성을 내셨습니다 (마 18:34). 하나님이 성을 내시면 그 순간 멸망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고, 두 번째는 성내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성을 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합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이 성을 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배웠습니다. 부모가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성을 내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한 사람이 성을 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아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내면서 학습이 되고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화를 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성을 냅니다. 내 부모도 했으니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이 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옥행을 자처하는 일이니 마음에 거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마는 하도 익숙해져 그런 느낌마저 쉽게 사라집니다.

성내지 말자

우리 다 잘못 배웠습니다. 성내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내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웃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욕을 해서, 참을 수 없었다고요? 자극을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자극이 올 때도 생각한 다음 성을 내니 성낸 그것도 내 책임이고, 성이 날 때도 생각한 다음 행동으로 옮겼으니 그 행동 역시 내 책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내지 맙시다. 집에서,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운전할 때, 성 많이들 내시지요? 너도 나도 하도 성을 잘 내니 별 것 아니라 생각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잘 몰라 그랬다 치고 앞으로는 성내지 않도록, 크든 작든 분노를 발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성내는 건 교만입니다. 죄악입니다. 가끔 착각도 합니다. 내가 성을 내지 않으면 우리 집이, 또 온 세상이, 잘못될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내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였습시다 (약 1:20). 성을 내어야 이를 수 있겠다 싶은 그 의는 그 순간 내가 그 성을 참을 때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유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눈이 죄 짓지 않도록 애쓸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눈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라는 마귀적인 감정을 피할 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밖에서 어떤 자극이 오든 그걸 남을 판단하는 분노로 연결하지 맙시다. 누굴 향해 성을 내든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관습에 젖어 또는 세뇌가 되어 내가 제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성이 먼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또 생각합시다. 무엇보다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고함을 지르기 전에, 욕하기 전에, 샷대질하기 전에, 주먹으로 치기 전에, 생각합시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생각하고,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는 동물처럼 되지 않도록 애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그걸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참 사람 세상

성내는 건 정죄하는 일이에요 정죄는 나와 이웃을 갈라놓는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바쳐 허물어 주신 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함께일 때 사람다운 사람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성내지 않을 때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래서 성이 난다면, 그걸 갖고 또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함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극을 어떤 생각으로 처리했기에 성이 났는지, 또 성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해 그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면서,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지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어에 대해 살필 기회도 곧 있겠습니다 마는 말하는 법도 연습하는 게 좋겠지요. “저 인간 저거,” “분해 죽겠다,”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입 못 다물어?” 이런 말도 하지 맙시다. 더 험한 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 이웃이 보고 있고 내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성을 내면 내 아이도 보고 배워 나중에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성을 낼 것입니다. 마귀적인 감정을 대물림하지 말고, 퍼뜨리지도 말고, 내 대에서 최대한 줄이고 또 줄여 이 세상에서 성내는 일, 죄 짓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성내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성내는 대신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너의 인격도 나의 인격도 참 아름다운 인격으로 발전시키고 너와 내가 함께 모인 그 자리는 참 사람이 모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